

2006년 도서보유 100만권 목표

도서관 실질적 예산 증액 필요

- 도서관이 곧 경쟁력 -

(표) 서울소재 대학별 장서보유·예산 현황

도서관은 대학의 학문적 수준과 경쟁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규모가 크고 내실있는 도서관을 가진 대학일수록 그 만큼 학문적 기반이 튼튼하게 구축되는 것이다.

이에 건학 100주년을 2년여 앞둔 시점에서 본교 도서관의 장서보유 실태와 시설·복지환경 등을 점검해본다.

편집자

대학명	단행본권수	비도서자료수	총예산(천원)
고려대	1,628,060	45,035	4,611,095
숙명여대	739,566	10,037	1,643,874
연세대	1,517,606	42,277	3,791,244
이화여대	1,316,946	68,220	3,134,703
중앙대	871,212	383	2,266,360
한양대	954,364	93,920	3,192,735
동국대	895,498	23,020	1,353,330

- ① 장서보관 실태 분석
- ② 시설·복지 환경 분석

지난 2월 기준으로 본교 중앙도서관 장서 보유권수는 91만 8,518권이다.

분야별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사회과학분야가 20.78%로 가장 많고 문학분야(16.55%), 응용과학분야(15.47%)가 그 뒤를 잇는다. 반면 언어분야는 4.24%, 철학·예술·자연과학분야는 각각 5%대로 낮은 편이다.

본교 도서관의 특징은 불교학 분야 장서 보유가 다른 대학에 비해 높다는 것이다. 불교학 자료는 동양사, 서양사, 학위논문, 고서, 전자도서 등 모든 종류의 자료가 풍부하며 특히 고서가 9천권 이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고서 중 가장 많다.

또한 최근에는 불교생태학의 특성화를 위해 이와 관련된 도서를 8백여권 더 구입했다.

이와 관련해 윤주영 중앙도서관 학술정보관리과장은 "본교의 경우 불교학을 특성화 해 그와 관련된 자료를 가장 전문적으로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강의교재·부교재 미비

불교학자료는 풍부하지만 전체 장서보유량은 서울소재 타대학에 비해 많지 않다.

전국사립대 도서관협의회 통계에 따르면 2004년 2월 현재 본교

장서 보유량은 서울소재 사립대학 중 6위로 중위권에 해당한다.

장서 보유량이 1위인 고려대는 200만권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예산도 연간 46억여원으로 본교 예산(13억여원)에 비해 3배 이상 많다.

본교 도서관 예산도 매년 10% 정도 증액되고 있지만 도서·학술지 등의 가격도 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서 구입을 매년 늘리는 데 제약이 따른다.

특히 강의교재와 부교재의 부족은 심각한 수준이다. 교재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찾는 도서임에도 구입조차 되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다. 이에 많은 학생들이 대형서점이나 헌책방 등을 돌아다니며 직접 구입해야 하는 형편이다.

이와 관련해 최유진(경제3) 양은 "강의 부교재가 도서관에 없을 때가 허다해 대형서점에서 개인적으로 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서관에서는 오는 2학기부터 강의에 사용하는 최소한의 교재를 열람할 수 있도록 '지정도서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지정도서제는 매 학기 개설된 전 강좌에 담당교수가 3종 이하 '도서관 지정도서' 목록을 도서관으로 보내면 최대 10권까지 비치해 열람할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학술지 업데이트 느려

또한 학술지와 저널 등 정기 발행지의 업데이트가 느리고 종류도 한정적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장하용(신문방송학) 교수는 "업데이트가 느릴 뿐 아니라 자료도 부족해 외국학술지는 주로 개인적으로 찾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도서관측은 "저널이나 학술지는 양이 방대해 모든 것을 보유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대한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매년 교수들에게 추천 도서나 저널지 목록을 받아 구입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학술지의 경우 국내에 유입되기까지 한달 정도가 소요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서관측은 "저널이나 학술지는 양이 방대해 모든 것을 보유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대한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매년 교수들에게 추천 도서나 저널지 목록을 받아 구입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학술지의 경우 국내에 유입되기까지 한달 정도가 소요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서관측은 "저널이나 학술지는 양이 방대해 모든 것을 보유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대한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매년 교수들에게 추천 도서나 저널지 목록을 받아 구입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학술지의 경우 국내에 유입되기까지 한달 정도가 소요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이용자들의 부주의로 베스트셀러의 경우 구입 후 1년만 지나면 훼손되는 실정이며,

한 학기에 평균 두 번 정도 복원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이 역시 구성원들이 느끼는 불편 중 하나다.

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도서관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도서관을 증대해 자료량이 많아질 경우 이를 수용하는 공간이 한계에 봉착한다는 것이다.

보유공간 확충 논의해야

물론 현재까지는 중앙도서관의 자료실에 여유가 있지만 앞으로 100만 권 이상의 서적을 보유할 경우 몇 년 안에 포화상태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자료 보유량을 늘리는 만큼 도서관공간을 확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교는 건학 100주년을 맞이하는 2006년까지 도서보유 100만권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도서관 예산 증액부터 실행돼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학문을 연구하는 대학인만큼 특히 강의 교재와 고서 마련 및 복원에도 더욱 투자해 교수와 학생의 연구·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대동과 환희 ... 지난 19일 저녁 총학생회(구자룡·아간영문4) 주최로 열린 대동한마당에는 4천여명의 학생들이 만해광장을 가득 메워 대동의 장을 마련했다. 특히 이날 마지막 순서였던 윤도현 밴드의 공연은 모든 관객이 하나가 된 환희의 장이기도 했다.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2005학년도 1학기 수시모집 실시

다음달 3일부터 접수 ... 일반우수자 등 총 292명 모집

2005학년도 1학기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다음달 3일부터 5일간 인터넷을 통해 실시된다.

이번 모집에서는 △일반우수자=259명 △LST(Leadership Special Talent)=30명 △연기재는 우수자=3명을 선발하며, 지난해보다 일반우수자전형은 24명, LST전형은 5명을 추가로 모집하는 것이다.

이중 LST전형의 경우 지난해 '고등학교 학급간부 1회 이상 지낸 학생'에서 '학급 부반장 이상'

으로 지원범위가 축소됐고 일반우수자전형은 △1단계=논술 40%, 지정교과성적 60% △2단계=1단계 성적 80%와 심층면접 20%를 합산해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이와 관련해 학생선발실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1단계 전형이 논술 100%였는데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신 성적을 먼저 반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기재는우수자전형은 국내·외 △연극 △영화 △TV 관련분야 대

회에서 개인상을 수상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연극영상학부에만 지원할 수 있다.

지정교과목은 인문계열의 경우 △영어 △국어 △사회관련 전과목이며, 자연계는 △영어 △수학 △과학관련 전과목이다.

접수는 본교 홈페이지(http://www.dongguk.edu)와 http://www.uway.com을 통해 가능하며, 2학기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오는 9월 실시될 예정이다.

'대학생 5월 한마당'

28일부터 3일간 ... 한총련출범식 분리

전국대학생 5월 한마당이 오는 28일부터 3일간 경희대학교에서 열린다. '스무살, 대학을 말한다'가 모토인 이번 5월 한마당은 이 전까지 한총련 출범식과 병행했던 것과 달리 순수한 대학생들의 한마당으로 진행되며, 300만 대학생의 공동 관심사인 교육·청년실업 등을 함께 고민하기 위한 자리로

기획됐다.

행사는 △참여마당 '스Fum'자 스스로 즐겨워지는 지름길' △전야제 '대학-300만의 제동걸기 새내기 한마당' △한국대학생 학술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부부마당·교류마당 '300만 네트워크 Stupower' △5월 한마당 대동마당 '반전평화문화제

Corea' △페막제 △정부와 17대 국회에 대한 대학생들의 요구 실현을 위한 거리행진 '스무살, 기분 좋은 충돌'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대학생들의 대동한마당'을 기획, 대학생 네티즌을 향해 △전세계 네티즌에게 반전평화메시지 보내기 △북녘동포에게 보내는 단합과 통일의 쪽지 보내기 △Click to Corea 사이트 동참하기 등 다양한 네티즌 한마당이 꾸려진다.

보리수

아버지와 천상병

십 수년 전의 어느 날,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달그락 달그락 부지런히 수저를 움직이며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다. 텔레비전에서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 흘러나왔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 ..."

언제 들어도 가슴을 저릿하게 만드는 이 시가 나는 한없이 반가웠지만 내 앞에서 묵묵히 당시의 그릇을 비워가고 계시는 아버지에게는 그저 한가한 인간의 시답잖은 풍류일 뿐인 터였다. 시

를 들으면서도 나는 내심 그런 생각을 품을 아버지에게 미리부터 실망하고 있었다. 그런데 여자 성우의 고요한 음성이 차츰 시의 마지막에 닿아가는 바로 그때였다. "...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

아버지의 손가락이 허공에서 딱 멈춰 버린 것이다. 아버지의 얼굴은 험악해졌고 시린 과일을 베어 무신 양 눈살을 살짝 찌푸리셨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애, 이 세상이 소풍이란다."

태어나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오직 전주먹과 야인 어깨만이 당신이 가진 전부였기에 아버지에게 있어서 삶은 피비린내 물진 풍기는 전투 그 자체였다. 한 순간도 스스로의 휴식을 허락하지 않았고, 타인은 자신에게 무거운 짐만 지우는 존재였던 것이다. 그런데 그런 자긱자긱한 삶을 소풍이라고 여기는 이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그야말로 충격이었다.

인간들에게는 그저 물일뿐인 것이, 물고기에게는 집으로, 천상의 존재들에게는 보석으로 꾸며진 연못으로, 아귀에게는 피고름으로 보인다는 비유(一水四見)도 있지 않은가.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만큼 보이는 법이다. 자기를 조금만 크고 깊게 열어둔다면 세상의 전혀 다른 가치를 만날 수 있으리라. 그 때가 너무 늦게 찾아오면 참 허망하지 않겠는가. 이 미령 역경원 연구원

지면안내

3면 해설

학과학생회비의 실태를 알아본다



학과마다 천차만별로 징수되고 있는 현 학과학생회비의 이용실태와 이에 따른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4면 사람

위풍당당동국인



현재 신림동 고시촌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 고있는 황남기(인철90 줄) 동문을 만나보았다.

8면 문화

응원문화



대부분의 대학원문화가 침체되어있는 가운데 본교의 응원문화의 현황을 알아보았다.

발전기금 060-700-0119

동대신문
기획광고



대출도서 반납은 배려입니다

도서 대출기한을 지켜 제때에 반납하는 것은 자신과의 약속이자 타인에 대한 배려입니다
도서 미반납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합시다

동대신문사

2004년 대동제 평가

학생참여 성공적으로 이끈 축제

인기연예인 치중·쓰레기 문제 등은 남은 과제

‘민족동국 파도타기’ 2004년 목석대동제가 지난 17일부터 4일간 성공리에 진행됐다.

이번 대동제는 학내 모든 이들의 참여를 유도, 반미·반전 평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자리로 예년에 비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풍성했다.

특히 곳은 날씨에도 5·18평택 질에 80여명이 참가하고, 대동한마당이 4천여명의 학생들과 함께 이뤄진 것은 이번 축제가 학생들의 참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6·15공동선언전문 타자치기 대회와 6·15김밥말이대회는 학생들의 호응도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반미·반전 평화 의식이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었다.

특히 대동한마당에서 운도현 밴드가 우리나라의 이라크 파병 반대를 외친 것은 ‘의식 있는’ 대학 축제의 의미를 살려주는 역할을 했다.

대동한마당에 참여한 홍명선(사과대2) 군은 “가요제에 참가하기도 했는데, 이번 대동제는 나와 동떨어진 축제가 아닌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쉬움점도 없지 않았다. 대부분의 학과 행사가 주점 일색이었으며 물품선 던지기, 요구르트 빨리 마시기 등 예년과 비슷

한 게임이 많았다. 또한 학과 행사 경우 지나치게 상업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주점 술값이 다소 비쌌을 뿐만 아니라 도박성 게임도 눈이 띄어 대동제의 본 의미를 무색하게 했다.

쓰레기 문제는 올해도 예외가 아니었다. 각종 게임과 술자리 이후 제대로 정리를 하지 않아 다음날 아침 학내 곳곳은 쓰레기장을 방불케하는 장소로 바뀐 것이다.

모든 행사가 끝난 곳에서는 학내 청소 담당 직원들이 술병을 분리수거하고 스티로폼을 정리했지만 행사 마무리를 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또한 초청특강에는 30여명의 학

생들이 모인 반면 인기가수의 공연에는 대거 인원이 몰려 ‘인기 가수’는 대학축제의 필수’라는 말을 실감하게 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여는 인기 연예인의 이름 때문이 아닌,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준비한 내실있는 공연과 행사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의식이 필요할 때이다.

앞으로의 대동제가 하나되는 진정한 대학축제의 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점차 오락적·상업적으로 변해가는 축제에 대한 참여자들의 ‘의식 개선’부터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활발한 학술교류 진행

삿포로학원대학 등 방중기간 문화교류

본교가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학교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외 대학과 활발한 학술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대학	신청기간	신청장소
삿포로학원대학	다음달 4일까지	국제교류실
상해사범대학	오는 31일까지	국제교류실
한국의국어대학	27일 부터 이틀 간	학사지원실
용곡대학	오는 27일까지	불교대 교학과

이번 교류에서 1차로 본교 10명의 학생들이 삿포로학원대학으로 파견돼 1주간의 연수를 받게 되며 2차로는 삿포로학원대학의 학생들이 본교에 초청돼 양 대학간의 문화를 교류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에서 각 대학의 학생들은 홈스테이를 통해 각 나라의 생활을 체험하게 되며 양 대학의 정규수업에 참가하는 등 문화탐방의 기회가 주어진다.

신청 자격은 현재 학부과정 3학기에서 5학기를 이수 중인 재학생으로 영어회화가 가능한 자에 한한다.

또한 본교 학생들의 중국어학 능력의 향상을 위한 중국어 연수 역시 이번 여름 방학기간 동안 실시된다.

현재 본교와 자매대학을 맺고 있는 중국 상해사범대학에서 다음달 21일부터 6주간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학생들이 직접 해당 학교의 정규 수업에 참가해 어학 능력 향상을 신장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다.

본교 학부, 일반대학원 석·박사

교과의 재학생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학부생이 연수를 이수할 경우 본교 ‘해외 중국어 연수’ 과목 3학점이 인정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하계 계절학기 교양 강의는 본교의 수업뿐만 아니라 한국외대의 교양 강의 역시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한국외대에서 본교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개설된 교과목은 △일본 사회와 문화 △논문 작성 및 글짓기 △문화인류학 등 총 21개의 강이 있다.

개설된 전 과목은 2학점이 인정되며 신청은 본교 및 외대 계절학기 학점을 합산해 6학점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일본 용곡 대학과 하계 계절학기 동안 불교학 관련 과목의 교환강의를 실시한다.

해당 과목은 ‘불교와 세계종교’로 용곡대학의 불교학과 교수 아사다 마사히로시와 진종학과 교수 오오다 리쇼오 교수가 초청돼 각각 1부와 2부로 나누어 4주간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회전무대

축제 불청객

“O...지난 20일 대동제에서는 주인과 손님이 바뀌는 현상이 일어났다는데.

이유인즉 본교 일부 단체의 행사를 후원하는 업체가 학내에서 홍보행사를 진행해 정작 총학생회에서 주최한 6·15 김밥말이 등의 행사진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학교축제인 만큼 앞으로는 대동제 기간에 상업적인 학회 관측행사를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위협하다(!)”

실시간 항의 서비스

“O...중도 도서 검색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아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데.

알아보니 도서관 자료 검색 시스템이 느려 한참을 기다려야 하고 심지어는 구입돼 있는 도서가 검색되지 않아 학생들의 항의가 늘어났 것이라고.

학생들 이용이 빈번한 시설인 만큼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빠른 서비스를 위해 마련된 검색 시스템, 느려지는 학생들의 편의(!)”

오염 전원지

“O...공대 학생회실 앞 복도에는 비밀의 문이 있다는데.

알아보니 예전에 문이 있던 곳을 출입문만 때어낸 채 방치해 통행에 불편을 줄 뿐 아니라 담배연기와 소음까지 빠지지 않는다고.

학생들의 이용이 잦은 학생회실 앞 통로인 만큼 빠른 시일내에 남은 문턱을 제거해야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공대 학생회실 앞 비밀의 문은 소음과 담배 연기의 주범(!)”

벤치 접근경보

“O...해화관 벤치를 이용하는 이들은 고습도치가 될 뻔 한다는데.

이유인즉 새로 바뀐 벤치가 다듬어지지 않아 바깥 벤치가 찰릴 위험이 있는 것이라고.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데다 옷이 얇아져 가시에 찔릴 위험이 더욱 커진 만큼 이를 다듬어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오후에 학생이 점심 먹고 일어나 잠시 쉬러 왔다가 가시 찔려 가지요~(노래 당당쌔!)!”

축구부 험멜코리아배 출전 31일 제주대와 첫경기

축구부(감독=김용해)가 광양에서 오는 30일부터 16일간 진행되는 '2004 험멜코리아배 제5회 전국축구대회'에 출전한다.

전국 57개 대학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에서 본교는 상지대와 제주대 등의 대학과 13조에 편성됐으며, 오는 31일 오전 11시 제주대와 첫 경기를 갖는다.

예선은 조별리그로, 결선은 각 조의 상위 2팀이 출전하는 32강 토너먼트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수회 대의원총회 25일 교수복지 관련 회신 논의

교수회(회장=염준근·통계학) 대의원 총회가 오는 25일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수회에서 학교측에 제출한 △임금 8%인상 △교수들의 병역 인정 △연구비 지급 개선 등 교수복지 관련 공문의 학교측 회신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종욱(정보관리학) 교수가 지난 4월 정보관리실장으로 취임함에 따라 김삼경(법학) 교수가 교수회 총무를 역임하게 됐다.

박영석 동문 장학기금 그랜드슬램 장학 1천만원

박영석(체교88졸) 동문이 오늘(24일) 3시 총장실에서 1천만원 상당의 장학기금을 전달한다.

장학기금은 '한글과 컴퓨터'와의 광고계약 수입인 1천만원을 '박영석 동문 그랜드슬램 장학기금'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그랜드슬램 장학기금은 현재 조성단계이며 앞으로 후원업체 등에서 더 많은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과대 예산 30% 삭감 자료제출 기한 넘겨

총대의원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김동우·중문4)가 사과대의 2003년 하반기 통상감사 결과 및 2004년 새터 부정부조각 감사 결과를 지난 14일 발표했다. 중앙감사특위는 감사시행세칙 5장 제24조 4-1항에 의거하여 두 감사 모두 예산삭감 30%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총대의원회 김동우 비대위원장은 “기한이 많이 지난 후 감사 자료를 제출한 것은 무기한 예산 정지에 준하는 것이나, 비대위 체재와 시기를 감안, 학생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예산 삭감을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함께봅시다’ ... 사범대 교학과는 학생들의 원활한 도서교류를 위해 학림관 1층에 ‘자율도서관’을 설치했다. 단행본, 잡지, 교재 등 다양한 종류의 책을 자유롭게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주상 기자 hjsoc228@dongguk.edu

복수전공 신청 28일까지

예체능 전공은 오는 8월 실시 예정

2004학년도 1학기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2학기 1차 복수전공 신청이 오늘(2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인터넷 접수로 실시된다. 또한 2학기 1차 복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신청이 다음달 7일부터 9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복학생의 경우 본교 홈페이지에서 복수전공 신청원을 내려받아 복수전공 해당 교학과에 제출하면 된다.

예체능 전공 지원자는 오는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본교 홈페이지

에서 신청서를 출력한 후 별도의 실기비와 함께 해당 교학과에 접수해야 하며 실기는 오는 8월 20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복수전공은 잔여석이 있는 한에서 제1전공을 배정 받은 자가 매 학기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선발인원은 매 입학년도 학과별 기준 정원 100%~200%에서 결정하며 시설여건 및 교수 확보 등을 고려해 학과 별로 배정가능인원이 설정된다.

봉축법요식 진행 오는 26일 정각원

불기 2548년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해 건학기념구원을 위한 봉축법요식이 오는 26일 8시 30분 정각원에서 열린다.

이번 봉축법요식에 김현해 이사장과 홍기삼 총장 등이 참석하며, 행사는 △삼귀의 △찬불가 △분향 및 관불 △봉축법어 △봉축사 등의 식순으로 진행된다.

전국 주요 사찰에서도 같은 날 진행될 예정이다.

2004학년도 2학기 1차 복학·재입학·휴학 안내

- 1. 복학**
가. 접수일자 : 2004. 6. 7(월) ~ 6. 9(수)
나. 복학 대상자 : 일반휴학자로서 휴학기간 만료자 및 학과기간 휴학하고 복학할 경우 교과과점 이수에 지장이 없는 자, 병사휴학한 자로서 전역자 및 2004년 8월말 이전 전역예정자.
다. 2004학년도 2학기 복학대상자중 2학년 복학예정자는 전공결정 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소속대학 교학과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라. 구비서류
1) 일반복학자 : 복학원서 1부(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2) 군복학자 : 복학원서 1부(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전역증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전역일자 기재된 것) 1부.
(전역예정자는 재대 후 반드시 전역증사본 또는 병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마. 유의사항 : 일반휴학기간 만료 후 휴학연장이 없이 복학하지 않는 자는 휴학기간만료 제정됨.
- 2. 재입학**
가. 접수일자 : 2004. 6. 7(월) ~ 6. 9(수)
나. 재입학 대상자 : 퇴학 및 학칙 제53조의 사유로 제적된 자로서 2004년 2학기 재입학 희망자. 단, 학칙 제53조 12호의 학사징계 제적자는 제적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후 가능.
다. 구비서류 : 재입학원서 1부, 제적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라. 유의사항 : 재입학의 경우 소속대학이나 학과 및 전공에 잔여석이 없을 경우 급학이 재입학 불가(참고 : 재입학의 경우 1차 접수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함).
- 3. 일반 휴학**
가. 접수일자 : 2004. 6. 14(월) ~ 6. 16(수)
나. 휴학 대상자 : 가정형편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수업일수의 2/3이상 출석할 수 없는 학생 또는 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학생.
다. 신청서류 : 보호자가 연서한 일반휴학원, 휴학연장원(휴학연장서) 1부.
(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라. 유의사항 : 일반휴학은 1회에 2학기를 원칙으로 하며, 재학기간 중 통산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단,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1년 추가 연장가능), 일반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는 자 또는 휴학연장원을 제출하지 않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 제정됨.
- 4. 접수장소** : 소속단과대학 교학과.

강의에 대한 온라인 설문 조사 실시

- 1. 취지**
가. 강의에 대한 합리적 분석 및 평가결과 환류(feedback)를 통하여 강의의 질을 향상하고 궁극적으로 대학의 교육부문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나. 교원업적평가 및 기관평가 시 교육부문에 대한 객관적이며 신뢰성 있는 평가자료를 산출하기 위한.
- 2. 시행시기** : 2004. 6. 1(월) ~ 6. 21(월)
- 3. 대 상** : 2004학년도 1학기 개설 전체 강좌
- 4. 응답자격** : 2004학년도 1학기 재학생 전체
- 5. 응답요령**
가. 본교 홈페이지(www.dongguk.edu)에 접속 후 강의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항목 클릭
나. 본인의 학번 및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강좌를 선택하고 주어진 문항의 해당 사항을 선택
다. 문항 간의사항란에는 자유롭게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바람
- 6. 공지 사항**
가. 학생이 응답한 의견은 보다 나은 강의를 목적으로 하며, 그 응답 내용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않으니 진지하고 성실하게 응답하기 바랍니다.
나. 무성의한 답변(5점적 중 일렬로 5회 이상 답변)은 과하기 바람, 건의사항란에는 5점적 답변이 곤란한 사항 등을 서술하기 바랍니다.
다. 학생은 자신이 수강하는 전체 강좌에 대하여 설문응답을 하기 바랍니다.
라. 설문 응답률 제고를 위하여 수강 강좌의 1/2이상 설문에 응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하여는 인터넷 및 본교 전산망에서 성적공시 조회를 제한합니다.

6월 시범시험반 장학생 선발시험 공고

- 1. 대 상** : 사범시험을 준비하는 전동국인(재학생, 졸업생)
 - 2. 일 시** : 2004년 5월 29일 토요일 오전 9시~12시 20분
 - 3. 장 소** : 정보문화관 P401, P402, P403
 - 4. 시험내용**
- | 학년 | 시험과목 | 시험범위 |
|-----------------|------|---------------|
| 1학년 | 민법 | 채권총론 |
| | 영어 | 토익RC 문제류 |
| 2학년 | 헌법 | 통치구조(헌법재판소제외) |
| | 민법 | 채권총론 |
| 3·4학년 /졸업생(10명) | 헌법 | 통치구조(헌법재판소제외) |
| | 형법 | 형법각론 |
| | 민법 | 채권총론 |
- 5. 장학금**
성적순으로 차등지급을 원칙으로 함(10, 20, 30, 40만원), 장학금으로 선발된 자는 계산고시회사 6월 입실을 원칙으로 하며 사범시험반에서 제공하는 각종혜택의 우선권이 주어짐.
 - 6. 응시료**
금 일천원(단, 시험에 응시한 학생은 시험종료 후 환불받을 - 응시료 필히 지참)
 - 7. 원서접수**
계산고시회사 2층 조교실, 2004년 5월 24일(月) ~ 27일(木) (3일간) 사전1매, 통장계좌번호(제일은행에 한함) 지참
 - 8. 주의사항**
시험과 관련된 부정행위 적발시 추후 시험응시거부 박탈됨.
- 기타 문의사항 2260-8685

지난 3월 야당의 주도로 발의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작된 탄핵정국은 4·15 총선 후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국가와 국민을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다. 이 와중에 대



논단

김상겸 법대 법학과 교수

법은 사회유지 생명선 준법의식, 밝은미래 보장

그러나 많은 이들의 우려가 있었음에도 국민의 현명한 판단과 자세로 우리 사회는 큰 혼란 없이 움직였고 탄핵문제는 현재의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역사적 판결이라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우리 헌정사는 대통령의 탄핵심판이라는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오랜 기간 부정적인 헌정사의 흐름 속에서 국민은 현실 앞에서 자신을 내세울 수 없었다.

법치국가란 정의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정당한 법에 의하여 통치되는 국가이다. 현대 법치국가는 정치의 탈법화를 용납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법의 정치화나 법에 대한 정치의 예측화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정치와 법의 관계는 현실사회에서 모호하게 혼재되기도 한다. 이런 현상은 정치적 법인 헌법의 영역에서 더욱 심화되기도 한다. 바로 이런 문제로 인하여 이번 탄핵 사건이 소용돌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유가 되기도 하였다. 나아가 법치국가는 악법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는다. 소위 악법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얼마든지 정당한 법으로 고쳐질 수 있기 때문에, 악법은 헌법의 틀 속에서 용해되어 사라져 버린다. 그러나 탄핵정국 속에서 사회 일각에서 나타났던 실정법에 대한 불신은 무척 유감스러운 일이다. 국회의원이 특권을 남용한다고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의 내용을 하위법인 법률로 바꾸려는 주장

이나 공무원단체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막는다고 헌법상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불복종운동을 전개하겠다는가, 개정된 집회 및시위에 관한 법률이 문제가 있다고 불복종운동을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벌어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틀에서 극히 우려할 만한 일이다.

법치국가에서의 법

이런 현상은 비단 일반 사회에서만 일어난다. 학문의 요람이고 지성의 전당인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대학의 학칙은 학내의 기본질서이다. 질서에 대한 기본의식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야 하고 생활해야 함에도 얼마 전의 학내사태는 무척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었다. 그 외에도 강의실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대리출석 등은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하여도 그런 행위가 학칙이나 질서에 위배됨으로써 준법정신을 훼손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현대 법치국가에서 법은 이 사회를 유지하는 생명이다. 그 생명에 돌을 던지는 행위는 스스로를 부정하는 행위일 수밖에 없다. 법을 불신한다면 우리에게 밝은 미래를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의 다음 이정표는 준법의식의 제고에 있다.

정치와 법과의 관계

학과 학생회비 실태 분석

학생회 '사업차질' 울상, 학생 '이중부담' 외면

현 상태로는 턱없이 부족 ... 등록금에 일률 고지 · 학생회비 인상 고려해야

본교 학생들은 같은 이름의 '다름' 학생회비를 두 번 납부해야만 한다. 등록금 고지서에 명시돼 일괄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8천원의 학생회비에 별도로 해당 학과의 학생회비를 한번 더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2만원에서 9만원까지 학과마다 천차만별로 징수되고 있는 이러한 학과 학생회비는 학생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일부 학과에서는 학생회비를 내지 않는 학생들에게 불이익까지 주고 있어 적지 않은 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왜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학과 학생회에서는 학생들의 이러한 불평을 감수하고라도 매년 학기 초마다 학과 학생회비를 별도로 징수하지 않으면 사실상 한 해 사업의 운영이 어려운 형편이라고 토로한다. 현재 등록금에 포함돼 한 학기당 8천원씩 납부되고 있는 전체 학생회비의 경우 △선거공영제비 △대동제 준비비 △연합체 회비로 일부가 먼저 원천 징수되고, 남은 금액을 4대 6의 비율로 중앙기구와 각 단과대가 나눠 배분하고 있다.

하지만 단과대별로 지급되고 있는 전체 학생회비의 금액이 학과 학생회까지 배분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한 학기의 사업인 △학과 학술제 준비 △새내기 유치비 △개강 · 종강 파티 비용 △학과 M.T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학과 학생들에게 별도의 학과 학생회비를 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반해 대다수의 학생들은 학과 학생회비의 징수에 대해 '왜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 '잠깐 피해 다니면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이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학생회비의 사용 계획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채 학생들에게는 무조건 납부하라는 강요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학과 학생회비의 경우 전체 학생회비와 달리 감사가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아 그 투명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학과 학생회에서는 자체적 감사를 실시해 학과 계시관을 통해 공개하고 학기 말에 학생 총회를 통해 전체 결산 내역을 발표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학생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이와 관련해 김창균(광고4) 광고학과 학생회장은 "70명의 학생 중 현재 8명만 학생회비를 낸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학과에서 학기 초 계획했던 사업에 차질을 빚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로 심지어 일부 학과에서는 학생회 임원들이 받는 장학금 전액을 학생회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일괄적 지급제도 마련 시급

학과 학생회와 학생들 사이의 학생회비를 둘러싼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제도로는 일부의 학생만이 이종의 학생회비를 납부하는 불평등한 구조가 지속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전체학생회비와 같이 학과의 학생회비도 총대에서 일괄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총대의원회 비대위원장 김동우(중문4)군은 "전체 학생회비와 같이 과 학생회비 역시 등록금 고지서를 통해 일괄적으로 고지돼 학생들의 불평 등을 없애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설

이제 걸치레 대화 그만하자

많은 학생들의 참여 속에 대동제가 막을 내렸다. 축제 준비와 홍보 기간이 예년보다 짧았고 학교측의 교비지원이 없었다는 약조건 속에서도 학생회는 높은 축제열기를 이끌어냈다. 대동한마당을 성공리에 치렀으니 이제 학생회는 학자요구안 논의를 학교측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관점거해제에 따라 학교측이 총장과 학생회간부의 면담을 약속했으나 여러 사정으로 무산된 만큼 양측의 논의지리는 그 필요성을 더하고 있다. 야간강과 폐지반대 등 학생회입장에서 학교측과 논의해야 할 사안이 산적해 있고, 시기적으로 볼 때도 기말고사와 하계방학을 앞두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논의를 마무리 못한다면 사실상 2학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교관계자와의 논의자리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과연 얼마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지는 미지수다. 물론 논의자체에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지만 과거 사례로 볼 때 단순히 걸치레식으로 양측의 대화가 마감된 경우가 더수였고 이에 따라 상호간의 앙금만 쌓아 갔던 적이 빈번했던 것이다. 학교발전이라는 크고 넓은 견지에서 바라보지 않고 서로 힘겨루기만 하려다 보니 아직까지 깊은 감정대립에서 못 벗어나는 듯하다. 하지만 학생회가 먼저 대화의 여지를 남겨둔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학자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점거해제하지 않겠다던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나 점거를 풀고 대화하자고 나선 것이다. 예전처럼 등록금 하향조정 같은 '성과'가 없었음에도 먼저 양보의 손짓을 보였으니 학교측도 이전과 다르게 성실히 대화에 임해야 하는 책임이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동반자라는 인식의 틀 속에서 학교측과 학생회는 상호간의 논의를 이어가 불신과 대립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재단측도 고질적인 전입금부족 문제에 대해 학생회와 진지한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다. 실타래처럼 엉켜 끊임없이 지속되는 불신과 반목, 대화분위기가 조성된 지금 제대로 풀어보자.

동국만평

성지영 tjdwud11@hanmail.net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홍기삼, 편집인 김주관, 부편집인 김국장, 편집장 최성민,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구독문의: (02)2260-3491 · 2, 동대신문 홈페이지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전화 (02)2260-3491 · 2, 팩스 (02)2279-1270, 전화 (054)770-2068, 팩스 (054)770-2057

2004학년도 후기 동국대학교 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한시간을 얻으면 백가지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대학원은 한시간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www.dongguk.edu

2004학년도 후기 동국대학교 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Table with columns: 대학원명, 구분, 원서접수기간, 전형일, 홈페이지주소, 문의처. Lists various graduate programs like 일반대학원, 불교대학원, 행정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언론정보대학원, 산업기술환경대학원, 문화예술대학원, 국제정보대학원, 불교문화대학원(경주), 사회과학대학원(경주).

외무고시수석합격 고시학원강사 황남기(인철90졸) 동문

위풍당당 동국인

“한가지에 집중하고 자신감 가지는 것이 중요”

인도철학과졸업, 외무고시 수석합격, 고시학원 최고의 강사. 본교 황남기(인철90졸) 동문이 거쳐온 길이다. 그는 어찌 보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길을 걸으면서도 언제나 그 자리에서 최고의 자리를 지켜왔다. 이에 황 동문을 만나 그의 고시학원 강사가 된 계기와 모교에 바라는 점 등에 대해 들어봤다.

- 인도철학과 졸업생이 외무고시를 거쳐 고시학원강사가 된 계기는.

= 불교계는 특성상 능력을 마음껏 펼칠만한 여건이 마련돼있지 않다. 현재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능력보다 인맥이 중요시되는 경향이 많으며 출가자가 아닌 재가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한정돼 있다. 그래서 나의 능력만으로도 승부할 수 있는 고시를 선택했다.

또한 외무고시 합격 후 시작한 공무원 활동도 비리가 난무했다.

국민도 법도 무시한 지배계급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싫었고 하고 싶은 공부하며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학원강사를 하게 됐다. 처음 1년 동안은 수강생이 없어 수업이 폐강되는 등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금의 선택에 매우 만족한다.

- 소위 말하는 성공을 거뒀다. 자신만의 비결이 있는가.

= 특별한 것은 없다. 단지 열심히 했다. 나는 예전부터 무엇인가 한가지에 집중하면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것만을 했다. 그래서 고시공부도 남들보다 조금 빨리 끝낼 수 있었다.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1학년 겨울방학 때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다. 그 후부터는 예전에 없던 자신감이 생겼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모든 일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됐다. 대학졸업 전에 한가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 본교의 고시합격자가 비교적 적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 교수들의 의욕이 떨어지는 것 같다. 타 대학 교수들의 경우 신입동 고시촌에 와서 정보도 수집하고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도록 도와준다.

또 유명한 강사들에게 특강을 부탁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교의 경우 그러한 노력이 미흡하다. 심지어는 내가 특강을 하겠다고 해도 연락이 없었다.

능력 있는 교수와 학생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듬어주고 이끌어주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 개교 100주년을 맞는 본교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개교 100주년이 된다고 했던 의욕이 생기고 실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개교 100주년을 맞아 진정한 재도약을 하기 위해



서는 주체가 바로서야 한다. 예를 들어 발전기금만 해도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한다면 수많은 불교신자들이 조금씩이라도 낼 것이고 내고 싶은 것이다.

학내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쳐 학교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면 성공적인 100주년을 맞이 할 수 있을 것이다.

- 앞으로의 계획은.
= 앞으로는 공부를 하고 싶다. 일본, 미국, 중국 등을 다니며 철학과 역사에 대해 공부할 계획이다. 어느 정도 공부를 한 후에는 우리나라의 역사발전과 사회조직에 대한 책을 쓰고 싶다. 자유롭게 사는 것이 목표다.

황남상 기자 hjs0228@dongguk.edu

동문칼럼

졸업정원제와 학부제의 공통점

지난 18일, 학과동기로부터 동문체육대회를 알리는 메일을 받았다. 내가 멀리 지방에 사는 관계로 이렇게 전해지는 소식은 매우 반가운 것이다. 그런데 그 알림에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었다.

이번 체육대회가 '예전과 다른 의미'로서, 96년 학부제 도입 이후 신입생이 없었던(?) 지난 7~8년과는 달리 사학과가 부활되어 처음 맞는 체육대회는 것이다 (96부터 03학번까지의 사학과 후배들이 서운하겠군) 이 소식을 읽으며 이런 저런 생각이 들었다.

87학번까지는 졸업정원제라고, 졸업정원제보다 많은 학생을 입학시켜 '열심히 공부한 학생만 졸업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운 제도를 시행한 적이 있다.

사실, 명분과는 달리, 당시 왕성하던 학생운동을 조금이라도 억누르겠다는 의도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바였다.

결국 그 제도는 명분도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적정인원보다 훨씬 많은 학생의 입학으로 교육여건만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내가 입학하던 해부터 폐지되었다.

학부제라는 제도로 '학문탐구강화'라는 명분으로 도입된 것으로 안다. 졸업정원제가 국가의 강제정책이었다면, 학부제는 전국 대학에 마치 유행처럼 번져나갔고, 다시 유행처럼 줄어들고 있다.

학부제를 경험하지 못한 이로써 함부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학과제 시절과 내용의 차이를 준비하지 못한 점과 취업의 어려움 등으로 학부제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학문탐구를 위한 분위기보다는 경쟁적 분위기만 강했다고 들었다.

학부제나, 졸업정원제나 모두 학생사



이승근 민주노총 울산지역 본부조직 4국장 문과대 사 96졸

회 내부에서 경쟁을 통해 학문탐구를 강화하겠다는 명분으로 시행되었던 제도를 이지만, 당시 사회적 조건, 또는 그 의도의 불순함으로 인해 결국 정착하지 못한 제도들이 되었다.

졸업정원제와 마찬가지로 학부제 역시, 준비 부족과 경제상황의 악화 등으로, 학문탐구 강화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축소되고 있다.

제도의 변화는 사회변화를 담는 그릇이다. 사회적 요구나 변화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그 변화된 제도는 오히려 사회변화를 억압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게 된다.

진정 대학사회가 진리탐구와 고급학문의 장이 되려한다면, 충분한 준비와 내실 있는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학문의 탐구는 타인과의 경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부단한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대학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자발적 학문 탐구자에 대한 지원을 우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의 길

'거미학' 개척한 김주필(생물학) 교수



모든가 천동설을 주장할 때 "지구가 공전한다"고 선언한 코페르니쿠스, 종교적 박해를 받으면서도 당시 신학적 권위까지 주어진 천동설을 무너뜨렸다. 세상을 변혁하기 위해서는 이런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이 필요하듯이 학문을 개척하기 위해서도 획기적인 발상과 대담한 도전은 필수적이다.

대다수사람에게 생소한 '거미학'이라는 분야를 개척한 김주필(생물학) 교수. 초기에는 주위에서 거미학 연구에 대한 그의 집념을 우습게 여겼지만 지금은 '거미학의 대가'라고 불릴 만큼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남과 다른 발상으로 이룬 특별한 학문세계

재학 당시 동물학을 전공하던 김 교수는 생태계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미와 지렁이에 남다른 관심을 가졌다. 이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연구하기 수월한 거미를 집중 탐구했고 어느새 거미연구인생으로 40여 년을 맞게되었다. "만화가와 소설가가 거미를 악역으로 만들었다." 해충을 먹이로 하는 이로운 존재인데 거미는 이로운데 위험하거나 해롭게 인식되어 많은 사람들이 환경과수꾼 역할을 하는 충실한 일꾼을 혐오스러운 벌레로 여기게 된 것을 안타까워한다.

거미학의 대가답게 김 교수는 40여년 동안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며 630여종의 거미를 발견해 그 특성을 연구했다. 야간에 활동하는 거미의 습성 때문에 한 밤중에 산 속에서 채집하다보니 남북긴장관계가 극심했던 6,70년대에는 간첩으로 오인받은 적도 한 두 번 아니었다고.

하지만 그보다 국가의 지원이 미비하고 거미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부족한 것이 더 큰 어려움이었다고 토로하는 김교수는 연구를 집중화하고 석·박사 후배들에

게 좋은 연구환경을 제공하고자 한국거미연구소와 거미 박물관을 설립했다.

또한 지난 1일에는 경기도 남양주에 아라코노피아(거미천국) 생태수목원을 건립해 거미와 수목이 어우러진 생태공원을 마련했다. 이렇듯 거미연구에 반영생을 매진한 김 교수는 요즘 들어 무공해 농업 연구에 한창이다. 살충제 대신 거미를 이용해 해충을 퇴치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살개방을 앞둔 시점에서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려면 무공해 농업으로 특화시켜야 한다." 연구는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연구결과를 적용하기 위해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남은 과제라고 한다.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에서 시작해 40여년을 연구해 해 달려온 김주필 교수. 이제 연구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개척한 영역을 후배들이 더욱 빛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최성민 기자 qwertewq@dongguk.edu

고수동정



△김애주(영어영문학)= 학술발표 및 자료 수집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샌프란시스코 방문.



△백수현(전기공학)= 논문발표를 위해 오늘부터 오는 29일까지 터키 이스탄불 방문.



△황훈성(영어영문학)= 논문발표를 위해 오는 28일까지 러시아 베체르부르크 방문.

의학과 배종대 교수팀 식도암 원인 효소 발견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과 교수 팀, 배종대(33)·안우섭 교수 등 의과학 교실 교수 14명이 국내 최초로 식도암을 유발하는 원인 효소를 발견해 식도암 예방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교수들이 연구를 바탕으로 공동 제출한 '십이지장 내용물의 역류로 유발한 환위의 Barrett 식도병변에서 유발성 산화질소 합성 효소(iNOS)의 발현에 관한 연구' 학술논문이 지난 7일 대구 인터블로그 호텔에서 열린 대한외과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대한외과학회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됐다.

2004학년도 2차 전공결정 안내

■ 관련 : 학칙 제26조(전공결정) 및 학사규제 제16조(전공·학과)

■ 신청대상 가. 2004학년도 2학년 재학생 중 전공 미결정자 나. 2학년 2학기 복학생 중 전공 미결정자

■ 2004학년도 2차 전공결정 일정

Table with columns: 전공결정 절차, 대상, 기간, 비고. It details the application and decision process for major selection, including dates and exam types for different student groups.

* 문과대, 이과대, 공과대, 정산대의 경우는 1, 2차 복학생 전공결정 사항만 참조

■ 전공결정시 기본원칙

가. 전공은 원칙적으로 학생의 희망(지방 1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나. 전공결정 대상자는 소속 대학(학부)내의 개설 전공(학과)만 지원할 수 있으며, 각 전공마다 우선순위를 정하여 4지망까지 지원하여야 한다. 단, 소속 대학(학부)내에 개설전공이 4개 미만일 경우에는 4지망 미만이 될 수 있다. 다. 전공결정 과정에서 특정 전공(학과)로 지원이 편중된 경우 수면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원칙으로 배정한다. (1) 각 전공(학과)별로 제1지망 지원자가 최대배정 가능인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성적순으로 사정하여 초과인원은 차순위 지망 전공(학과)에 순차적으로 배정한다. 이 경우 1지망 지원자를 우선하기에 1지망 탈락후 2지망으로 옮겨갈 때 해당 전공을 1지망으로 지원한자가 평점평균이 낮더라도 우선 배정된다. (2) 전공(학과)별 2차 정원 : 1차 선발 인원을 제외한 잔여인원

■ 전공결정 신청방법

가. 2학년 재학생 (1) 학업지도교수와 충분한 면담을 통하여 본인의 적성과 희망전공을 숙고한다. (2)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소속된 모집단위내의 개설전공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4지망까지 전공 신청.(동일전공 중복지원 불가) (3) 일단 신청된 전공은 취소 및 정정이 불가하기에 본인이 신청한 최종 확인을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나. 2학년 2학기 복학생 (1) 전공 신청원에 본인이 소속된 모집단위내의 개설전공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4

지망까지 작성하여 신청한다.(동일전공 중복지원 불가) (2) 작성된 전공 신청원은 소속대학 교학부에 접수한다. (3) 각 대학 교학부에는 개인별 신청원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날인한다. (4) 일단 접수된 신청원은 취소 및 정정이 불가하기에 본인이 접수된 최종 확인을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배정기준

가. 1학년 1·2학기, 2학년 1학기 성적과 계절학기 성적을 통산한 누계 평점평균을 비교 적용한다. 나. 다음의 경우는 3개학기 이수자와 성적 경쟁시 3개학기 이수자의 하위에 둔다. (1) 2개학기 이수자(조기복학자) (2) 3개학기 이수자중 1학년 수료학점에 미달하는 자 * 1학년 수료학점(2003학번기준) : 35학점(단, 불교대, 사회과학대, 경영대 : 30학점) 다. 동점자 처리기준 (1) 제1기준 : 개인별 누계 평점평균을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비교한다. (2) 제2기준 : 평점평균이 동일한 자중에서 총 취득학점이 많은자가 우선한다. (3) 제1, 2기준에도 동점자일 경우 동 순위로 처리한다.

■ 복학생의 전공결정

가. 기본원칙 복학생은 입학당시 소속된 모집단위내에 개설된 전공(학과)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단, 모집단위가 세부화되어 소속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학부 소속 전공만 지원 가능하다. 나. 배정기준 (1) 98~00학번 복학생 전공결정 * 이과(가), (나)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희망전공 배정 (가) 98~00학번 복학생의 성적이 98~00학번 전공결정 당시의 전공별 컷트라 인을 상회할 경우에는 희망전공에 배정하며, 선발정원 잠시에 따른 일반 재학생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정원의 외 관리한다. (나) 98~00학번 복학생의 성적이 복학 당시 이루어진 전공결정에서의 전공별 컷트라인을 상회 할 경우에는 희망전공에 배정하며 정원의 외 관리한다. (2) 2000학번 이후 복학생 전공결정 : 현행과 동일

■ 정원의 입학자

가. 대상자 : 교부 및 외교관자녀, 외국인, 농어촌, 특수교육대상자 등 나. 배정원칙 본인의 희망전공에 우선 배정하며, 선발정원 잠시에 따른 일반 재학생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정원의 외 관리한다.

■ 편입학생의 전공결정

일반 학생의 전공 배정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하며, 학기수 부족에 대한 차순위 배정은 하지 않고 본교에서 취득한 성적만을 일반학생과 비교 적용한다.

제21회 명찰순례

心爲法本 心尊心使. 中心念善 即言即行. 福樂自追 如影隨形.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 되어 주인으로 모든 일 시키나니 마음속에 착한 일 생각하면 말과 행동 또한 그러하리라 그 때문에 행복은 그를 따르리 형체를 따르는 그림자처럼

- 法句經

마음속에 화두 하나 가지고 떠나 볼까요? 한국 근대 禪의 여명을 밝힌 선지종철, 수덕사로의 기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1. 순례일자 : 2004. 6. 4(금) ~ 6. 5(토) (1박2일)
2. 순례장소 : 충청남도 예산군 덕숭산 수덕사
3. 참가대상 : 전 동국인(45명) - 선착순으로 접수함.
4. 참가비 : 오천원(W5,000)
5. 접수기간 : 2004. 5. 19(수) ~ 6. 1(화)
6. 접수처 : 본관 학생복지실(☎2260-3048)
7. 출발일시 및 장소 : 2004. 6. 4(금) 오후4시, 정각원 앞

'효과적인 나의 학습방법' 사례 공모

동국대학교 교육연구원은 학생들의 학습방법 공유와 다양한 학습방법을 촉진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학습방법' 사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학습방법(개별 및 그룹스터디 등) 가운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학습경험 사례를 방법 및 효과를 중심으로 A4용지 3~4매 내외로 작성하여 보내주세요. 사례내용에는 교과목, 교수님의 학습지원 방법, 학습효과 등을 포함시켜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학습방법사례를 기다리며, 선정된 학생에게는 소정의 상금을 드립니다.

- 동국상 : 20만원(1명)
● 만해상 : 10만원(3명)
● 대상 : 본교 2,3,4학년
● 신청기간 : 2004년 6월 6일
● 보내 주실 곳 : cti@dongguk.edu
● 문의 : 동국대학교 교육연구원 교수학습개발센터 2260-3897/3898

모든 생명은 상호의존에서 상호존중으로

불교적 생명관 접목 ... 생태계 위기 대안 제시

개교 98주년 기념 '기증유물특별전'

강렬하고 유장한 매력 발산

다음달 11일까지 본교 박물관에서 전시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춰 생활의 여유를 찾고 싶을 때 한번쯤 다채로운 유물들을 관람해 보는 것은 어떨까?

개교 98주년 기념 '기증 유물 특별전'이 지난 10일부터 본교 박물관 제2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특별전에는 정기용 씨의 목조나한상을 비롯하여 강석주 스님의 청화백자산수문연적, 이지관 스님의 신중도 등 약 150여 점이 전시돼 있다.

이중 먼저 정기용 씨가 기증한 목조나한상(조선 후기, 42.5cm)을 눈여겨볼 만 하다. 연꽃형 대좌와 사자를 안은 듯한 몸매를 이루고 있는 이 전시품은 나무 조각의 새김이 간결하면서 양감이 잘 살아 있는 조선 후기의 불상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조각양식이다. 나무로 만들어졌으나 금빛의 다채로운 색채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속에는 실과 서적들이 있어 사람들로 하여금 불상에 생명을 불어넣어 준다는 의미를 갖게 한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 이지관 스님이 기증한 신중도(1887년작)라는 불화도 여는 미술품과는 달리 그 분위기가 의미심장해 보인다. 신중도는 주요 신장상의 표현과 배치 양식에 따라 그 유형이 구별되는데 주로 녹색과 적색이 주조를 이루고 있어 보는 사람들이 그 강렬함에 넋을 놓기 일쑤이다.

종단 원로 강석주 스님이 기증한 청화백자산수문연적(조선 전기, 1567년작), 연화당초문암막새, 아미타불도 등 여러 가지 불교유물들을 관람할 수 있다.

유물전을 관람하던 하태봉(식품공학99졸)동문은 "불교적 특성을 살린 다양한 불교 미술품을 만날 수 있지만 전시 규모가 작아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번 개교 98주년 기념 특별전은 다음달 11일까지 열릴 예정이며, 박물관은 앞으로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는 2006년도에 학교역사자료를 중심으로 백주년기념사업본부와 함께 전시전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술부 dgupress@dongguk.edu



▲희경루방회도(喜慶樓榜會圖)



▲신중도(神衆圖)

청화백자산수문연적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청과 백의 만남으로, 마치 가을하늘을 나는 한 무리의 백로를 연상하게 할 정도다.

이밖에 이번 특별전에는 한 재일교포가 기증한 조선전기의 계회도인 희경루방회도(조선 전기, 1567년작), 연화당초문암막새, 아미타불도 등 여러 가지 불교유물들을 관람할 수 있다.

유물전을 관람하던 하태봉(식품공학99졸)동문은 "불교적 특성을 살린 다양한 불교 미술품을 만날 수 있지만 전시 규모가 작아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번 개교 98주년 기념 특별전은 다음달 11일까지 열릴 예정이며, 박물관은 앞으로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는 2006년도에 학교역사자료를 중심으로 백주년기념사업본부와 함께 전시전을 마련할 계획이다.



◀목조나한상 조선 후기 높이 42.5cm



◀청화백자산수문연적 조선 후기 높이 7.9cm

지난 21일 덕암세미나실에서 진행된 불교 문화연구원 주최 학술세미나 '희망의 생태학, 길도 숲도 필요하다'의 발제문 중 김종욱(불교학) 연구교수의 '농업적 생명, 산업적 생명 그리고 불교생태학적 생명'을 정리해 보았다. 편집자

인류가 문명을 형성한 이후, 대부분의 역사는 농업사회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농업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자연의 허용 범위 안에서 생태 순환 시스템을 통해 생명을 양육하고 있는 반면, 현재의 산업은 자연과 철저히 대결하면서 자연의 허용 범위를 넘어 생명을 가공 처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는 자연의 모든 것이 파괴와 오염, 소비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러한 현대 산업 문명의 문제점을 제대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동·서의 각 문명권이 제시하고 있는 기존의 생명관을 대조해 보고 이에 따른 생명 위기의 시대에 대한 대안과 불교 생태학에서의 생명관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생명은 무생명의 물질과 결합하여 자연의 전반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생명을 보는 관점은 자연을 이해하는 시각 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자연관은 각 문명권마다 매우 다른 양상으로 전개돼 왔다.

주지하다시피 산업사회에서 자연이란 인간에 의한 지배와 이용과 개발의 대상이 되어왔다면, 소위 농업사회에서의 자연은 대립이 아닌 조화의 대상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같은 농업사회라 하더라도 서양과 동양은 그 문명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 현실이다.

다시 말해 산업화 이전의 서양과 동양은 비 산업사회라는 점에서는 일치하지만, 서양이 해양문명과 상업문명의 성격을 띠는 것이라면 동양은 대륙 문명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그 문명적 성격을 달리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산업사회의 생명관과 대비되는 의미에서 농업사회의 생명관을 고찰하려면 우선 그 농업 사회를 대륙·문명적 동양의 비 산업 농업 사회와 해양·유목문명적인 서양의 비 산업 농업 사회로 나누어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먼저 동양의 농업사회에서는 생명을 '대지'의 표준적 이미지로 하여 '자연화'된 존재로 인식하고 그 본질을 순환성에 두고 있는데 반해, 서양의 농업 사회에서는 생명을 '영혼'의 표준적 이미지로 하여 '의인화'시켜 그 본질을 '합목적성'에 두고 있다.

또한 산업화 이전에 일종의 완충 역할을 했던 생기론(le vitalisme)생명관은 '감각성'으로서의 생명력을 모든 생명의 원리로 삼았다.

이에 반해 산업사회에서는 기계를 표준적 모델로 생명관이 성립되기 시작했으며 그 본질 역시 조작 가능성, 이용 가능성, 상품화 가능성 등에 두고 있다.



그러던 것이 생태계의 위기의 시대인 오늘날에 와서야 비로소 생태학의 본질은 상호의존성을 대표로 순환성과 항상성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에 더해 불교 역시도 네트워크적인 '그물'을 생명의 표준적 이미지로 하며 상호의존성에 의거한 순환성과 항상성을 생명의 본질로 여기고 있는 점에서 생태학과 연결 고리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특히 불교적 의미의 생명인 '연생(緣生)'과 '비생(悲生)'으로서의 중생은 생명의 본질인 상호의존성을 상호존중성으로 확대시킴으로써 생태계 위기 해소에 유용한 생명 사고의 방식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순환성'을 그 본질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농업적 생명관과 생태학적 생명관은 일치한다.

농업은 철저히 자연 의존적인 산업이다. 이는 농업의 원리를 살펴보면 생명체의 산출 유지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자재인 이산화탄소를 무제한으로 값을 치르지 않고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광합성이라는 유기물 제조 과정에 필요한 에너지 역시 태양 광선으로부터 무한정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농업은 자연 의존적이기에 자연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자연의 순환적 질서에 순응하고 있다. 또한 땅에 씨앗을 묻고 싹을 틔우며 생명체를 길러 내는 생명 양육으로서의 농업은 땅에서 얻은 것을 다시 그 땅으로 다시 되돌려 준다.

즉, 땅에서 자란 생산자인 식물이 산출한 유기물을 소비자인 동물이 섭취하고, 그렇게 살다가 땅에 묻힌 식물과 동물을 분하는 미생물이 무기물로 해체하여 재차 식물의 땅 및 뿌리 속으로 흡수되도록 하는 전 과정이 지속적으로 순환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생태계의 생물학적 구조는

'순환성'을 그 특성으로 하고 있으며 각 단계가 서로 '상호의존성'을 지니고 있음을 판단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의 땅, 대지는 생태계 순환의 중심지가 됨으로써 모든 생명체의 어머니가 되고 있다는 논리가 생태학적 생명관인 것이다.

이처럼 순환적이라는 점에서 농업의 생명관과 생태학적 생명관은 이토록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농업이 자연의 절대적 지배력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자연의 순환성에 순응해 왔다면 오늘날의 산업 사회는 살아있는 자연을 파괴하고 죽이는 과정을 통해 엄청난 자원을 낭비하고 있으며 생태계의 오염 역시도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생태학은 생태계의 이치를 연구함으로써 이렇게 파괴되고 있는 자연을 회복시켜 나가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순환성 등 자연 생태계의 이치는 단순한 순응의 대상이라 판단할 수 없으며 지혜와 조화의 차원에서 탐색되어야 할 내용인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순환성이 상호 의존성이라는 '시스템적 네트워크'로 심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 지점에서 농업과 생태학이 승화의 접점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상호의존성이 '상호 존중성'이라는 실천의 차원으로 확장돼 나가기 위해서는 상호의존의 존재라는 의미의 '연생'과 상호존중의 존재라는 의미의 '비생'이라는 불교적 생명관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포괄적 의미에서의 생명관이 불교와 생태학이 창발적으로 융화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일조하는 동시에 농업 문제, 즉 생태계의 위기의 해결에 진지한 대안을 제시하는 터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리=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동국대학교가 3대사학으로 거듭나는 길

캠퍼스 확충·특화학과 집중육성·재단의 투자 필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마도 '학연'을 들먹일 때가 아닌가 한다. 소위 명문대학 출신이라면 그 자체가 아무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언제나 마이너리티(minority)에 속해 있을 때는 공연히 어떤 박탈감 때문에 기분이 상해버린다.

직장마다 동문회가 있고, 그것이 때로 공조직의 인제 풀로 작동되는 것을 발견하고 속으로 화를 낸 적도 있다. 능력, 자질과 상관없이 어느 대학 출신이냐가 핵심 보직과 승진의 기준이 되어 지위와 직책을 달리 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직장에서 은연중에 어떤 직원들이 핵심 직책으로 옮겨가고, 승진도 빠른 것을 더러 보게 될 것이다. 거기에는 공적 심사기준이 작동한다고 하지만 알게 모르게 선배의 입김도 작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물론 겉으로 그런 일이 없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암암리에 먼 눈

치로 선후배 쟁기는 것이 직장이나 조직 문화의 한 패턴이 된 지 오래고, 그러지 못한 입장에 있는 사람은 상당히 속상한 일이다.

이런 자간의 사정 때문에 많은 학부모들이 결사적으로 자녀들을 비싼 과외비를 지불해가며 소위 명문대학에 보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고 본다. 그 광적인 열기는 바로 이같은 사회의 반영인 것이다. 대학의 서열이 오늘날의 '신분제'가 되어버린 것이다.

어느대학 출신이냐가 바로 사회적 주류(main stream)에 편입하느냐 비주류가 되느냐, 사회적 메이저리티(majority)나

마이너리티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세대다.

그렇다면 우리 동국대학교는 어떤가. 과거는 어떻게 현재는 어느 지점에 있으며,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동국대학교가 날로 발전한다는 얘기도 듣는다. 하지만 우리가 맨발로 달려갈 때 다른 후발 대학들은 비행기로 날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일제 강점시대는 물론 6·25 전후까지 동국대는 이 땅의 3대 명문 사학이었다고 자부해왔고, 배출된 인적 자원만 보더라도 이를 입증한다. 하지만 개발독재와 산업화를 거치고 오늘에 이르면서 과

연 그런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일까. 오늘날은 더 왜소해진 것은 아닐까. 해방 후 생긴 심층 사학들이 줄기차게 뻗어나가 자타가 공인하는 명문 사학으로 발돋움했을 때 우리는 정체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린 것은 아닐까. 인기학과 개설이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비축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홍보 활동도 뒤처지거나 손을 놓았던 경우는 없었는가.

그 이유를 주인없는 학교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또한 불교적 멘탈리티가 현대적 기호와 거리가 있고, 종단이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보수적이고 현실무적 태도의 결과물이라는 비

판도 없지 않다. 아무쪼록 동문들이 땀땀하게 '동국대 출신이다' 라고 말할 만큼 학교의 위상이 제고되어야 한다. 과거 3대 사학의 영광을 다시 되찾았으면 한다. 이런 바람이 결코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

불교재단이 이제는 또다른 의미의 막대한 자원이 되고 있다. '민족동국'이라는 말도 그저 나오는 수사가 아니라 불교라는 문화적 전통과 자주라는 전통종교의 적자(適者)란 점에서 그러하다.

본교의 캠퍼스도 학교의 위상이나 스케일에 맞게 커나아가야 한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을 하는 이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타대학의 경우 인근 개인주택이나 공공건물을 사들여 교지와 교세를 확장한 것을 볼 수 있다.

시 관리의 수명장 시설도 캠퍼스 안에 있는데 시설이 낙후돼서 쓰러져가는 동국대 현실로 오해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이 건물을 학교에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지어 일부는 본래대로 수명장으로

쓰고 나머지는 부족한 연구실이나 강의로 활용하면 어떨까.

다음으로 특화 학과는 집중 육성돼야 한다.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는 절경은 사법 행정 의무 기술고시 등 각종 고시에서 많은 합격생을 배출하고, 불교학 연극영화학 한의학 경찰행정학 국문학 등 경쟁력을 지닌 학과는 지속적으로 우수 학생을 유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단의 투자가 필수적이다. 종교재단이란 기본적으로 이익을 쫓는 기업체가 아니다. 하물며 불교는 이타행(利他行)을 위해 존재하는 지구상의 가장 아름다운 종교 아닌가.

훌륭한 미래의 사회 지도자를 배출하면 저절로 3대 사학으로 다시 진입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불교가 지향하는 이타행의 가치에 충실히 복속하는 일이 된다. 그것이 우리 동국대학교가 사는 길이다.

이 계 홍
국문과 69졸·월간 Currenal Korea 편집인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만화, 또는 사진을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TEL : 2260-3491 · 2
FAX : 2279-1270
문의·제보 : dgupress@dongguk.edu

참된 민주주의 되새겨 본 광주순례

동아리연합회장의 권유로 가게 된 오월의 광주는 내게 무척 소중한 경험을 안겨주었다. 물론 이런 소중한 경험을 위한 길이 순탄치만은 없었다.

출발 시간이 늦어짐에 따라 예정시간보다 몇 시간 늦게 도착하게 되었고, 조선대에서의 문화제 공연이 새벽 3시를 넘겨서야 끝났다.

하지만 몸은 피곤하였어도 다른 많은 학교 학생들의 공연을 보면서 동질감을 가질 수 있었고, 다음 일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마음만은 설렘이었다.

고요한 이른 아침의 망월동 묘역 참배 역시 잊을 수 없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지 알게 되었고, 또 그 진정한 앎을 위해 몸으로 실천하고 불의에 맞서 싸운 열사들의 의지를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언젠가 아버지께서 5·18 민주화항쟁 때 금남로를 밟고 도청을 향한 사람들은 죽을 줄 알면서도 앞으로, 앞으로 나아갔다고 말씀해주셨었다.

자신의 신념과 시대의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그 용기는 결코 평범한 사람은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운 것이다.

이러한 열사들의 정신을 계승하여 아직도 사회 전반에 남아있는 불의와 부조리를 바로 잡는 밑일이 되어야 하겠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지로 긍지 높은 광주. 그동안 표면만 보았던 광주를 벗어나 순례를 마치고 난 후의 광주는 점점 새로운 벽찬 가슴으로 내게 다가오게 되었다.

또한 80년 민주화항쟁의 본질적 의의와 그 배후에 있던 미국의 무도함과 자국이기주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아름다운 경험을 선사해준 동연장과, 함께 수고한 동아리 연합회 식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김태원(사과대1)

영화 '효자동 이발사'를 보고

사건 개연성 부족 ... 기대보다 아쉬워

연기과 배우인 송강호와 문소리를 내세우며, 가슴 따뜻한 휴먼스토리를 담아내려고 한 영화 '효자동 이발사'는 사람들의 기대 속에 5월 5일 개봉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로 부터 기대 이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필자도 몇 번에 걸쳐 방송을 탄 예고편을 보며 기대감에 부풀었던 사람 중 한사람이다. 소위 빨갱이라 불리는 사람들을 가려내기 위해 정부에서는 실사병에 걸린 사람들을 모두 잡아들인다.

그리고 그 중에 효자동 이발사 아들인 낙안이도 포함된다. 낙안이는 그곳에서 전기 고문을 당하게 되지만 잘 견뎌낸다.

그 후 그 사건이 마무리 되면서 낙안이는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전기 고문으로 인해 두 다리가 비정상적이 되면서 목발이 없는

살아 갈 수 없게 된다. 아버지 송강호와 어머니인 문소리는 그런 아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방법을 찾아간다. 그리고 결국 그런 정성으로 낙안이의 두 다리가 치료된다는 이야기.

결국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이라는 간단한 주제로 풀어진 이야기지만, 중간 중간 사건의 개연성이 없고 아들의 다리가 고쳐지는 에피소드에서도 확실한 연결고리를 찾기 힘든 게 사실이다. 또한 거의 클라이막스에 다다를 때까지 스토리의 전개도 진부한 면이 많아, 뒷이야기에 대한 긴장감 같은 것도 별로 기대하기 힘들다.

하지만 송강호를 좋아하고, 그의 또다른 연기 모습을 한번쯤 더 감상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다.

윤영선(사과대1)

설레었던 축제 부끄러운 우리의 뒷모습

올해도 어김없이 5월이 찾아왔다. 싱그러움 빛을 뽐내고 있는 풀잎들과 맑은 하늘이 이쁜 계절이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찾아온 자연과 함께 이맘때면 어김없이 대학가의 '축제'도 시작된다.

우리의 축제도 지난 19, 20일이 열렸다. 각 소모임과 동아리들에서 마련한 다양한 행사와 즐겁게 웃으며 축제를 준비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5월과 보기 좋게 어우러지고 있었다. 어느 때보다 학내에는 활기가 넘쳐났고 오랜만에 '설렘'이란 감정도 맛보았다.

축제가 열린 이틀의 시간동안 분별 학내구성원들은 즐겁게 축제를 즐겼고, 캠퍼스는 해맑은 활기로 넘쳐났다.

이제는 축제가 막을 내렸다.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 봐야 하지 않을까.

분명 축제 기간동안 우리는 맘껏 즐겼지만, 그것이 끝난 후의 모습도 웃으며 바라볼 수 있는 것일까. 아무리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주점'이지만, 우리가 즐겼던 만큼 뒷정리도 깔끔히 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하지만, 축제 뒤의 모습은 어땠을까. 여기저기서 술냄새가 진동하고 음식쓰레기가 나뭇굴며 술병들이 저마다 캠퍼스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더러운 학내 곳곳을 치우시는 아주머니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운 마음이 고개를 들었다.

분명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은 것은 우리인데, 왜 치우는 사람이 우리가 아닌 것일까. 이 점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우리는 분명 '지성인'이라 불리는 대학생이고 우리의 '축제'를 지성인다운 모습으로 꾸려나가야 할 것이다. '축제'라는 단어.

분명 생각만 해도 즐거운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그에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간파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의 축제인 만큼,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자.

최혜진(사과대 행정2)

소나기

식대인상, 나는 이렇게 본다!



△가격은 올랐는데 맛은 영...
△오른 가격만큼 음식의 질도 올려주세요.
△식판만 바뀐거 아니예요?
△인상된 만큼 밥이랑 반찬도 많이 주세요.
△커피값도 올랐네. 거스름돈 귀찮아!
△아주머니들도 이제 그럼 더 친절해지시는 거죠?
△밥값만 오르고 변한 건 없다
△밥 두번 먹어도 눈치주지 마세요!
△그래도 조금은 변한 거 같네~
△전더기 많은 국 먹고 싶어요.

△상록원 2층 메뉴가 조금 더 다양해졌으면 좋겠다
△당최 가격만 오르고 바뀐거 뭐예요?
△오른만큼 곧 달라지겠죠?
△생협 관계자님. 앞으로 기대할게요
△전과 별반 다르게 없는데...
△전더기만 좀 많아 졌네.
△생협아저씨, 맛이 이게 됩니까?
△진짜 맛있네.
△차라리 도시락을 싸가겠어요.
△음식 갑자기 짜졌어요.
△식당 직원여러분~ 음식 맛나게 해주세요.
△커피값 인하하라.
△커피 잔돈 귀찮습니다.
△이젠 50원 모아야겠네.
△맛만 좋아진다면 음식값은 상관없다.
△반찬 진짜 적게 주네.
△가격은 올랐지만 질은 하라.
△다시 가격 내려요.
△식당 화이팅.
△식당 서비스 앞으로 개선 될거죠?



동약광장

축하합니다

△5월 31일 국고과 03학번 이종규 생일축하해요.
△사과대 04학번 강민!! 성년된거 축하해.
△승은아! 좋은사람 생겨서 정말 축하!
△여친있었니가 좋냐? 성민이? 축하한다.
△H형 살빼면 거 정말 축하드려요.
△식이 잠깐동안 도피 성공한 거 축하한다.
△불면증 걸린 거 축하한다.
△난 J.M이 잘 돼 축하합니다.

열심히 합시다

△반식이 힘들어도 열심히 해! 우리가 도와주마. -45th
△단풍연 연등제 화이팅!
△우리 두달에 40만원 모으기 성공하자! 하루에 천원씩만 쓰면돼. -현수·정연
△이제 기말고사 준비 열심히 하자!
△C양 소개팅 열심히 하세요.
△상동래미들아, 우리 웰빙 열심히 즐기자.
△잠자지 말고 열심히 합시다.
△E.J씨 힘내요!
△엘리트 자네나 열심히 하시게~ -곽형

수고하셨습니다

△불교도주간·제등행렬 행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범대 주점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역교과·빠
△우리 착한 영구, 알바 하느라 수고한다. 열심히 해.
△주우, 많이 먹어대느라 수고했다.
△J, 그동안 힘든거 이겨내느라 수고했어.
△삼군, 땀살 흘리느라 수고 많았다.
△미니군, 말대랑 싸우느라 수고했다.
△우리 정말 수고한다. -쌍
△3주 동안 수고했어.

그리고 ...

△감! 우린 날 믿는다
△사는데 왜이리 힘든건지. 여행 가고파.
△태우형 언젠가는 가여?
△야 배부르다! 이제 그만 먹자!
△우리 이제 가는 거지?
△으랏차차! 파이팅이다!!
△이~ 글 쓰느라 수고 많았다.
△세진아, 내 홈페이지에 글좀 남겨.
△술 선배~ 술 사줘요.

금주의 식단

	동국관	상록원	교직원
월 (5/24)	떡김치찌개 (1600) 소고기볶음밥 (1800) 오징어튀김 (1800)	참치찌개 (1600) 제육콩나물볶음 (1800) 간짜개 (1800)	된장찌개 (3200) 콩나물볶아해장국 (3500) 두부김치 (3500)
화 (5/25)	갈비탕 (2000) 제육볶음 (1800) 비빔밥 (1800)	쇠고기국밥 (1800) 순살돈가스 (1800) 김치볶음밥 (1800)	된장찌개 (3200) 갈비탕 (3800) 된장비빔밥 (3500)
수 (5/26)	부처님 오신날 휴무	부처님 오신날 휴무	부처님 오신날 휴무
목 (5/27)	소고기해장국 (1800) 닭꼬치구이 (1800) 너비아니백반 (1800)	만두육개장 (1800) 오징어볶음밥 (1800) 리조옥 (1800)	된장찌개 (3200) 아채전골 (3500) 떡갈비찜 (3800)
금 (5/28)	닭곰탕 (1800) 낙지볶음&소면사리 (2000) 스파게티 (1800)	김치수제비 (1600) 지장밥 (1800) 갈비경단 (1800)	된장찌개 (3200) 독배기불고기 (3800) 코다리주조림 (3500)

달하나 천강에



이상현
사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법관의 임무에 관한 '바람직한 법관'의 모습이 옛날부터 여러 가지로 그려지고 있다. 법적 안정성이 우월적인 법의 목적이었던 19세기에서 '구체적 타당성'이 요구되는 20세기가 되면서 같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법의 해석·적용의 방식에 다른 주문이나 기대가 요구되고 있는 것은 주지한 바와 같다. 그러나 옛날부터 법관에게 요구되는 자질이나 조건에는 우연 이상의 일치가 나타난다.

라도부록(G. Radbruch)이 이끌고 있는 13세기의 수소벤, 수피겔은 모든 법관이 갖추어야 할 4가지의 덕(德)으로 첫째, 정의, 둘째, 용기, 영지(英知), 셋째, 강직(剛直), 넷째, 절도를 들고 있지만 그런 것들은 어느 것도 현대 법관에게 적용해도 이상할 것 없다.

16세기의 가로리나 법전에서 법관은 경건(敬虔), 염치(체면이나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총명하고 경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했던 것도 오늘날의 상식과 그다지 동떨어지지 않는다. 동서고금(東西古今)의 명 법관 이야기에 투

재판관의 이념상

영된 이상적인 인물상도 위와 같은 덕목의 전부 또는 태반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현실의 살아있는 이상적 법관이 되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다. 이에 대하여 맥 그라리(Mac Cleary)가 그린 완전한 법관은 심리(審理)나 법의 적용에 있어서 사려 깊고 그리고 경험이 풍부해야만 한다. 그것은 법의 기본 원칙이나 선례(先例)나 실정법의 전체에 관하여 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생활 경험도 세대 인정에 대하여는 이해를 함께 갖는 것이 필요한 인물이다.

그리고 이런 것에 더하여 균형잡힌 정신, 천성의 정의감, 존민(儆敏)한 이해력, 탁월한 기억력, 건전한 육체적 조건, 무한의 인내력, 피로를 모르는 근면, 불굴의 용기, 뛰어난 의무감, 매력

있는 매너, 거기에 유머를 이해하는 센스를 더한다면 거의 완전한 법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성품의 아름다움과 장점을 가지고 있다면 인간으로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성자(聖者)'라고도 할 터이니 법관으로서도 나무랄 데가 없을 것이다. 누구에게나 요망되는 법관의 최소한도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의감 절도(節度) 균형감각 등을 포함한 공정성.

둘째, 객관적인 인식력과 논리적인 분석력.

셋째, 인간생활에 관한 통찰력.

위의 3가지 조건은 법관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자격 요건이다. 아마 어떤 법관론을 보아도 이 이상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이다.

메아리

추한 미군

▲미군의 잔혹한 이라크포로학대 장면이 연일 공개되면서 반미·반전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하는 상황. 과연 '인간'으로서 무장해제된 이라크인을 그토록 무참하게 학대할 수 있는지 경악을 금하지 못할 정도다.

그럼에도 부시 미대통령은 반성이 나 사과의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 럽스펠드 미국방장관은 이라크를 방문해 오려던 미군 격려에 나서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 19일에는 미군 전투기 100여대가 이라크를 또다시 폭격해 4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미군의 '만행'은 우리나라에서도 맹위를 떨치고 있다. 슬마시고 난동을 피우던 한 주한미군이 자신을 말리던 한국인을 칼로 찔러 중상을 입히는가 하면, 택시비를 안내고 도망가기 위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파렴치한 미군도 있었다.

언론에 보도된 사례가 이 정도면 실제로 그들의 범죄가 얼마나 더할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노근리사건과 독극물 방류, 2년전 여중생 압사사건까지 SOFA라는 방어벽을 두르고 그동안 쉼 없이 미군은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을 무참하게 짓밟았다.

▲그럼에도 정부와 정치인은 미국의 눈치만 살필 뿐 강력한, 아니 대

응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열린우리당이 과반수를 차지한 이후 사회보호법 폐지와 국가보안법 개폐논의 등 여러 개혁과제가 추진되고 있지만 유독 미국과의 관계, 특히 이라크추가파병철회나 소파개정 등의 사안은 여전히 논의로 남아있는 것이다.

오히려 정부는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로 지레 겁먹었는지 이라크파병 국들이 속속 철군하는 상황에서도 자이툰부대를 7, 8월경 파견한다며 추가파병원칙을 공고히하는 실정이다. 자주국방의 미래는 멀게만 느껴진다.

▲...우리 모두 잊지 말자/ 너희 미국놈들이 살인마들에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너희들의 양심에 사형 선고했음을 우리 모두 잊지 말자/ 해방 이후 지금까지 '북한의 남침'을 억제한다는 미명 아래/ 통일 이후에는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다는 미명 아래/ 또 그 다음에는 '세계의 평화'를 위한다는 미명 아래/ 너희 미군들은/ 영원히 이 땅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두 소녀의 죽음' 중에서.

최성민 편집장
qwertewq@dongguk.ac.kr

지상논쟁을

한총련 운영비 논란

제한한다

“활발한 연대활동 중인 본교는 당연한 것”

대학교 학생회의 역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총학생회는 학내 주체의 하나인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구이다.

이런 학생회가 담배하게 되는 목소리는 다양하다. 가까이는 등록금 인상, 학교 식당문제와 같이 학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

그러나 단순히 학교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에 대한 것이 전부는 아니다. 대학생은 학생이면서도 성인이기 때문에 학외의 다양한 사회·정치적인 문제들에도 관심을 갖기 마련이다.

그러다 보면 우리사회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도 알게되고 '이건 아니다' 싶은 사안들도 알게 된다. 바로 이 사안들에 대한 목소리를 학생회가 담배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정치적 사안들은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사안들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복잡하며, 깊은 지식을 필요로 한다. 한 학교 안에 있는 하나의 학생회만으로는 목소리를 담배하기에 부족한 한 것이다.

그래서 '연합'을 통해 보다 조직적이고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학교는 한총련에 가입되어 있다.

어떤 조직이든 그 조직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운영비가 필요하듯이 한총련

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우리 학생회비의 3.8%를 운영비로 내고있고 이는 그 단체에 가입하여 활발한 연대를 통해 조직적으로 활동을 하는 우리 학교로서는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한총련 회비에 관한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것은 아마도 얼마 안되는 금액보다는 한총련에 대한 반감과 거부감이 더 큰 이유일 것이다. 그리고 그 중요한 원인은 한총련 내부의 분열과 운영에서의 착오,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의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 일 것이다.

대학교 총학생회 연합이라는 단체가 대학생들에게 조차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분명 문제이다.

앞으로 학생들에게 더욱 친밀하고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것, 그리고 보다 더 조직적이고 확실한 운영을 하는 것은 분명 한총련의 목표고 책임이다.

그러나 우리들도 무조건적인 반감과 거부감을 가진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한총련이 이적단체로 규정된 것은 97년 김영삼 정부 때의 일이다.

만약 이적단체로 규정되지 않았더라도 한총련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이렇게 부정적일 수 있었을까? 이성적이고 비판적으로 한총련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 이것은 우리들의 몫이다.

최이평(문과대 43)

“한총련 운영비 납부 시대흐름에 부합하지 않아”

한총련은 북한적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는 단체라 생각한다. 그들은 미군의 철수를 주장하고 노동자를 찬양하는 등 얼마 전의 메이데이 참가를 통해서 본다면 그들이 과연 학생들이나 하는 생각인가 든다.

학생은 최우선이 공부라고 생각한다. 나라와 나라의 문제에 관해서 걱정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 걱정들이 학생의 입장에서 고민되어지고 토로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총련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은 아직 사회진출을 피하기도 전에 신분상의 법적인 규제를 거쳐서 제약을 받게 되고 그들의 부모님은 평생 지을 수 없는 땅을 품고 살아가게 된다. 즉, 학생들이 고민할 수 있는 여건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총련은 그 범위를 넘어서려고 하여 사회적으로 뛰어난 지식 인간이 되어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학생운동의 근본이 학생들이고 민중이려면 그 근본은 우리학생과 민중들이다. 그러나 학생과 민중들이 등돌린 한총련과 학생운동은 이미 뿌리없는 나무라고 생각한다.

한총련은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조직임을 알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해야만 된다고 생각한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시대의 순수한 양심과 진정한 지식인은 청년학생들임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의지와 생각이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선 절대 친북세력이 아니라 진정한 미래를 걱정하는 학생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한총련의 흐름중 하나인 진정한 통일이 그 목적이라면 모두에게 의문당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를 통해서 통일에 대한 당위와 의견을 이끌어 내는 것이 진정한 학생으로서의 모습이 아닐까 한다.

그에 반해 한총련이 매도당하고 외면당한다면 안티와 생각없는 학생들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한총련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의 책임이다. 우리도 반성하고 변화해야 한다.

이제 청년들과 함께 살아가고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중심이고 대한민국이 그 중심인 표현은 시대와 발 맞추어 다양하게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에 맞추어 한총련과 그에 반하는 사람들 모두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다른 의식을 함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이런 맥락에서 학생회비 중 3.8%를 한총련 운영비로 지급하는 것은 시대흐름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희근(이과대 43)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지면계약으로 불교학 심도있게 다루지 못해

지난 1387호 동대신문은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되었다. 그러나 몇 가지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적지 않다.

먼저 학술면은 그 구성과 내용 부분에서 아쉬움이 크다. 지면을 좀 더 허락해서라도 불교와 맥을 같이 하는 동국 100년의 역사와, 그리고 동국대학교와 불교의 관계를 좀 더 심도있게 다루었어야 한다. 현재되고 있는 '사상가 이야기'를 다음호로 미루고 특집 형식으로 다루었다면 내용이 풍성했으리라 생각한다. 또 제목에 비해 그 내용은 너무나 요약적이고 함축적이다. 물론 학술면에 기고하신 학정배 불교학과 명예교수님은 짧은글 안에 거대한 주제를 다루기 위해 단어 선택 등에 있어서 고민했을 것이 다. 그러나 좀 더 평이하게 글을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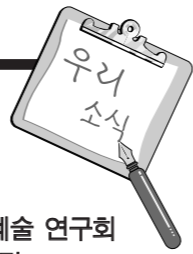
했다면 동국대학교가 불교대화학을 위해 지난 100년간 무엇을 했고 현재 어떠한 발전과정에 있는지 동양인 누구나 한번 읽어보고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다음으로 3면의 사설은 신문사의 주관에 심하게 개입된 글이었다. 물론 사실이 어떤 시사문제에 관해서 신문사가 그 사(社)의 책임으로 표명하는 의견이나 주장을 말하지만-나 역시 국보법 폐지를 찬성한다-일방적으로 송두율을 희생양으로 보는 시각은 맞지 않다고 본다.

끝으로 '대동제 따라잡기'라는 제목으로 2면 하단에 전체적인 행사를 공시한 것은 학생들의 참여 고취에 있어 매우 바람직했다. 그리고 8면의 '축제 더 이상 혼자일 수 없다'라는 기사는 우리 학교 축제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그 대안을 제시해 본 훌륭한 기사였다. 시기적으로도 축제기간에 맞물려 우리학교 축제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강건욱(불교대 인철3)

동약게시판



신문방송학과 특강

온라인 저널리즘과 여론 : 현황과 과제
오연호(오마이뉴스 대표)
5월 27일 오후 4시
문화관 세미나 회의실

대학생 중소 기업 체험활동(중활)

대상 : 대학생 (휴학생 포함)
기간 : 연중(2주~2개월)
분야 : 연구 및 사무보조, 정산업무, 생산현장업무, 프로젝트 수강 등
소정의 교육비 지급
신청 : 소속 대학 중활 담당 부서
취업 및 산학협력부서

삼성소프트웨어 멤버십 회원모집

대상 : S/W분야에 있는 국내 정규 4년제 대학(원) 재학생
(졸업 전 1년 이상 활동 가능한 자)
접수 : 6월 1일~3일
접수방법 : S/W멤버십 홈페이지
설명회 : 6월 1일 3시
다량관 세미나실

제주향우회

5월 25일 6시
만해광장
문의 : 016-699-4421

세화고, 세화여고 동문회

5월 24일 오후 6시
팔경도 코끼리상
1만원
문의 : 017-394-6557

공인회계사 1차 합격 장학생 선발

2004학년도 공인회계사 대상
5월 28일까지 접수
김갑순 교수님 연구게시판
원서제출 : 7월 5일~7월 9일
제출서류 : 1차 합격증서
문의 : 011-9727-3921

동국서도회 신입생 모집

학생회관 2층
문의 : 02-2260-3782

인도 선재 수련

인원 : 10명
일정 : 6월 24일
프로그램 : 명상수련, 불교 유적 답사, 국제지원활동
문의 : 02-587-8911

동국대학교 자작로봇 소모임

설명회 및 세미나
5월 27일 6시
정보문화관 P401호

동국대학교 사진예술 연구회

-동그라미 예술제전
5월 27일~29일
도서관 전시실

경제학과 졸업앨범 촬영

5월 24일 오후 1시
불상양

동국 이지트레 스타대회

5월 27일~28일 오후 1시
예선 : 동국아지트 PC방
결선 : 5월 26일 동국관 3층 로비
동크(동국대 스타크래프트 소모임)
문의 : 019-577-8094

김호성교수 지도교수 제자 면담

5월 27일 오후 5시
김호성 교수 학부지도 제자 대상
김호성 교수 연구실(교수회관 3층)
문의 : 2260-8710

정치경제학 연구학회 창립제

5월 25일 오후 7시 30분
동국관 옆 나체발

인도철학과 졸업사진 촬영

5월 25일 오후 1시
불상양

퍼즐-동대신문이 보인다

조를 통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협동, ○○협력이라 함.

세로열쇠

- 지면 상에서 하나의 이슈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을 주장하면 설전을 벌이는 것.
- 의논에 불이기 위하여 의견을 내어 놓음. 드러내어 문제를 일으킴. 소송을 ○○하다.
- 학술·문화 교류협정을 체결한 국내외 대학을 가리켜 ○○○○이라 함.
- 학문·교육·연구의 증진을 목적으로 서로의 정보와 지식 등을 교환하는 것.
- 공중과 방송국과 일간지에 공채로 취직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험을 일컫는 말.
- 경상북도 봉화군과 강원도 영월군 태백시 경계에 있는 산. 백두대간의 중심.

1387호 정답

1	식	대	인	상	연	등
2	동	주	공	지	한	
3	축	제	시	간	강	사
4	원	배	치	도		
5	문	정	회	배	치	도
6	구	배	치	도		
7	직	선	제	로	비	

당첨자
김규환(직원노조 사무국장)
이은정(수4)
김수정(국제2)
김수정(국제2)

「퍼즐-동대신문이 보인다」는 발행일자 동대신문 기사에 등장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만들어집니다. 정답을 적어 복사 송부해 응모해주세요. 정답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이번 호 정답과 당첨자는 5월 31일자 신문에 게재됩니다.

편집자

매체비평

TV 편

북경내사랑

“국가적 이해관계에 가려진 젊은이들의 사랑과 성공스토리”



한국과 중국 젊은이들의 사랑과 일을 주제로 제작된 한·중 최초 합작 드라마.

멋진 외모와 풍족한 재력, 거칠 것 없는 성격으로 작업(?)만 일삼던 재벌집

아들, 즉 이 드라마의 주인공인 나민국이 어느 날 갑자기 중국으로 납치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지는 것으로 드라마는 시작된다. 중국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신용카드사용 정지, 돈지갑과 여권 도난, 아버지 회사 북경지사 직원들의 안면몰수이다. 게다가 그는 밤 한 끼 사먹고 돈 계산할 정도의 중국어는 커녕 영어도 할 줄 모른다. 더욱 황당한 것은 그를 납치하여 난관에 빠뜨린 장본인은 바로 아버지라는 사실이다. 물론 아버지는 그를 북경지사장으로 발령 낸 상태이나 본인은 그걸 모른다.

아버지의 처사에 대한 원망과 분노에 매달릴 틈도 없이 그는 당장 해결할 일이 태산이다. 갖고 있던 원화는 금세 바닥나고, 오갈 데도 없다. 그저 매달릴 수 있는 건 몇 번의 우연으로 안면을 익

힌 북경대학에 다니는 중국여성과 중국 회사와의 합작건으로 북경에 와 있는 한국여성사납가, 한국 유학생, 교포들이다. 주인공은 이제 이들과 함께 사랑도 하고 일도 하고 사업에서의 성공도 해야 한다. 그리고 또 있다. 북경대 여학생을 좋아하는 사업가도 주인공이 부대껴야 할 대상으로 사랑과 사업의 경쟁자로 긴장감을 더하는 존재이다. 이만한면 '북경내사랑'의 진행이 예상이 되면서 과연 어떻게 펼쳐질지 긴장이 된다.

그러나 그 긴장감은 이내 풀어지고 만다. 왜일까? 주인공으로 살인미소 김재원이 중형무진 활약하고, 중국스타 손페이페이의 매력도 새롭고, 사업가도 나오는 한재영의 자신만만함도 여전한데 말이다. 그 이유는 최초의 한중합작드라마

라는 데에 지나치게 의미를 두어 이 드라마의 기획의도인 국경을 초월한 젊은 이들의 사랑이야기, 성공스토리가 탄력을 받기에는 한계를 드러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드라마는 한중수교 1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의 교류와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에 양국 공동으로 기획, 제작, 방송되고 있다. 그래서인지 양국의 이해관계, 국민정서 등을 처음부터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다. 최초의 한일합작드라마였던 '포렌즈'가 철저하게 한국과 일본의 남녀주인공 개인의 감정선을 따라 움직였던 데에 비해 '북경내사랑'은 기본 설정부터 국가적 이해관계에 충실하다.

한국에게 있어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기술적 우월감의 확인을, 또한 국내외

시장을 놓고 한판 경쟁을 벌이는 긴장 상태를, 추구에 있어서는 '공한증'을 갖고 있는 나라다. 이러한 감정들이 드라마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3회에서 문제지 됐던 여주인공의 '속국' 발언으로 거센 비난을 받아 담당 PD의 공식사과하는 일도 벌어졌다. 한국과 중국의 상황실정에 전체적인 드라마 흐름이 묻혀버린 것이다.

이 드라마가 양국의 교류와 화합을 겨냥하는 것이었다면 양국 젊은이들의 사랑과 일을 통해 양국의 교류와 화합을 이끌어내는 일에 충실해야 하지만, 이 드라마 역시 한류열풍을 지나치게 의식해 오히려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자못 우려된다.

윤혜란
미디어세상 열린사람들 사무국장

응원아! 우리 하나로 뭉쳐볼까?

열띤 응원통해 참여 이끈 문화의 장으로

하지만 요즘 대부분 대학에서는 응원문화를 찾아볼 수 없다. 월드컵 전에서 응원문화가 살아남아가 싶더니 다시 고개를 숙이고 들어갔다. 각 대학 운동 대회를 비롯해 공연이 있을 때에는 사람들의 참여도 부족하다.

학내행사 미흡, 응원문화 침체

본교 응원문화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응원단이 무슨 활동을 하는지 어떤 운동부가 있는지 모르는 학생도 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외 공연에서 응원단을 본적이 없다"고 말하는 이종규(불교2)군의 말처럼 현재 본교 응원단은 학내 큰 행사로 3개 정도 진행할 뿐이다.

이같이 응원문화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학생들의 관심 부족과 응원단의 사기저하, 학교의 지원부족을 꼽을 수 있다. 체육부가 여러 곳의 운동대회에 참가하는 경우에도 지난 2년 동안 응원단의 응원을 볼 수 없었다. 이와 관련해 이화여대 응원단 나이나니(교육3)단장은 "교내 행사가 있을 때면 자주 학교에서 불러주는 편이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학내행사를 보면 예를 들어 단과대 등 소속감을 띠며 진행

하는 행사와 회의를 진행할 때 문제의 관건은 '분위기 저조' '정족수 미달' 등 '참여'인 것으로 보인다. 응원단 역시 관객을 이끌기 위해 비싼 예산을 들여 연예인을 불러 해소하려 했지만 결과는 연예인만 구경하고 가는 등의 문제가 뒤따랐다. 이에 응원단에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건국대의 경우 신입생에게 발간되는 책자에 소개하는 등 활발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건국대 응원단 박상연(축산가공2) 단장은 "충학생회 행사와 학군단체 등 교내 행사에 응원단이 자주 참가해 홍보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응원의 발전적 방법

응원문화는 행사를 이끌고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분위기를 한 층 올려준다. 그래서 학교 전체적으로 관심과 참여를 활성화 시킨다. 응원이 학교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이때문이다.

이런 응원 문화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우선 그동안 침체 됐던 체육부 부터 재도약해야 한다. 응원은 선수들의 사기를 돋구고 이는 당연히 승패에도 연관된다. 체육부와 응원단



의 육성은 별개로 보지 않고 서로 공생하는 관계가 돼야한다. 이와 관련해 체육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체육부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건국대와 체전교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여러 교내행사에서 응원단이 참여를 활발히 해 공연에서 관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재미를 선물해 학생의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 우리는 응원문화를 단순히 '경기'에 도움을 준다'라는 개념을 넘어 응원문화로 우리가 '하나'될 수 있는 문화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난 2002년 6월에 있었던 빨간물결의 기적이 동국에도 휘날릴 때 애교심이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문화부

culture@dongguk.edu



백상응원단장 인터뷰

“열정과 젊음 선물해줘요”

현재 본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학에서 응원문화가 사라져 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본교 백상응원단은 응원문화를 살리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백상응원단장 이훈희(경영3)군을 만나 응원의 매력과 응원문화 침체 이유 등에 대해 물어보았다.



이훈희(경영3) 군

-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공연과 응원제, 콘서트 등을 하고 기업의 체육대회 응원전과 운동 프로그램 등 이벤트 행사를 한다. 또한 올림픽과 아시안컵, 월드컵 등 국제스포츠대회가 개최될 때에는 대학응원단으로 참가해 우리팀의 응원을 돕는다.

- 응원의 매력은.
= 응원은 단순히 '보여주기' 공연이 아닌 관중들과 몸짓, 손짓으로도 '하나' 되어 즐길 수 있는 매력이다. 예를 들어 운동경기에서 우리 응원으로 선수들이 희열을 느끼며 분발하고 관객들은 자신도 모르게 박수치며 환호한다. 이런 분위기가 선수와 관객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뭉치게 만들어 우리에게 열정과 젊음 그리고 자긍심을 느끼게 할 수 있다.

- 학교와 학생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 이전에 본교 야구부가 결승전을 치를 때 동대문야구장까지 가서 응원하는 등 운동부 경기가 있으면 응원전을 펼쳤지만 요즘은 체육부가 이전처럼 활발한 활동이 없고 학교에서 우리를 참여시키려는 지원도 없어 아쉽다. 학교, 학생 모두의 많은 참여를 이끌 수 있었으면 좋겠다.

황주상 기자
hjs228@dongguk.edu

강렬한 '열정'으로 스트레스를 날려봐~

백상응원대제전,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돼

진빵 속에 단팥이 없으면 밀가루 반죽만이 있는 싱겁고 딱딱한 빵에 불과하다. 마찬가지로 축제 속에 '열정'이 없으면 어떨런지는 생각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열정이 담긴 공연이 부족했던 본교에 모처럼 단팥이 가득한 진빵같이 맛깔나는 공연이 열려 학생들의 허기진 가슴을 채워 주었다.

지난 20일 만해광장에서 백상응원단이 진행한 '제23회 백상응원대제전'이 바로 그것이다. 이날 대제전은 지루하게 뿌리는 비로 추적 추적하게 보내야 하는 축제 마지막 마당을 흰 코끼리들의 몸짓으로 힘있게 장식했다.

백상의 공연과 △건국대 △이화여대 △인하대 등 타학교 응원단의 찬조 공연도 진행됐다. 공연 중 응원단장들의 몸에서 피어 오르는 열기로 인한 김은 무대의 강렬한 열정을 관객들에게 전달하기에 충분했다.

이화여대의 응원은 남학생들의 열렬한 환호성 속에서 진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정은경(선3)은 "지나가는 길에

뜨거운 환호소리에 놀라 들켰다"며 "평소에는 접하기 힘든 응원단의 모습을 보며 다같이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됐다"라고 말했다.

또한 여성응원은 과격적인 의상을 입고 짜즈댄스를 선보여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으며 응원단을 포함한 선배들의 OB공연도 있었다. 이들은 응원단의 대표곡인 '진달래'로 현역단원 못지 않은 무대를 펼쳐 눈길을 끌었다. "다양하고 풍부한 공연으로 구성돼 긴만에 질리지 않고 신나게 즐겼다"라는 이규혁(반도체2)군의 말처럼 행사의 분위기는 점점 더 고조됐다.

대제전의 막바지에는 △동국대를 위하여 △밀양아리랑 등의 응원가 메들리에 맞춰 관객들과 함께 율동을 하는 공연으로 진행됐다.

마지막 공연에서는 학생들은 무대위로, 응원단은 객석으로 뛰어들어 학생과 응원단이 하나가 되는 공연으로 대제전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비에 씻긴 듯 싹 날아갔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학내공연을 자주 접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유재명(식품)군의 말처럼 응원단과 학생 그리고 학내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숨쉬며 뛰는 공연문화의 활성화를 기대해 본다.

황주상 기자
hjs228@dongguk.edu

배워봅시다

응원가

박혁이개 행진곡중으로 이병주 작사
이희복 작곡

창 창 한 남산 기 숲 우리-동대 는
당 당 한 우리 기 상 인 드-락깃 발

드 높 은 민 천-무 퇴 보 밤 에 산 다
드 높 은 민 중-태 세 빛 나 는 천 통

풍 상 에 가 다 들 은 억 선-팔 다 리
한 마 음 한 뜻 으 로 똘 천-코끼 리

우림
우림
우림

우 명 정 진 우 명 정 진 우 리 동 대 남 산 코끼 리
우 외 와 우 외 와 우 외 와 우 외 와 우 리 동 대 남 산 코끼 리

